

■ 연구원 소식

○ GHS 남산 역사기행 안내

: 남산 역사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산 기슭을 걸으며 한국근현대사의 숨결을 느끼고자 합니다. 민족수난기의 아픔을 온몸으로 이겨낸 남산 소나무를 벗삼아 남산의 과거와 현재를 음미합니다. 많은 분들과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희망찬 내일을 상상하고 싶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 안 내]

- 일시 : 2015년 10월 17일(토) 오후 2시
- 일정 : 조선신궁터(남산도서관) → 안중근기념관 → 백범광장 → 한국통감부터(서울애니시네마) → 통감관저터 → 국가안전기획부 건물(서울유스호스텔) → 중앙정보부 건물(서울특별시 남산청사) → 남산골한옥마을(박영효 생가 등)
- 해설 : 최병도(GHS 운영위원)
- 답사는 남산도서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산도서관 오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선버스 402·405, 남산순환버스 02·03·05 탑승 후 “남산도서관” 하차
 - 남산순환버스는 지하철 충무로역 2번출구(대한극장 앞), 약수역 1·2·7번출구, 회현역, 동대입구역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독도 바로 알기 UCC, 에세이 공모전

: 한국고전문학연구원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과 함께 “독도 바로 알기 UCC,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독도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갖추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응모기간 : 2015.09.14(월) ~ 10.21(수)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공모주제 : 독도 바로 알기(UCC, 에세이)
-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hangoyeon@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연구원 회원 소식

○ 우리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들녘에 누룽지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영업을 시작한 심범식 회원은 <금싸락 누룽지>라는 누룽지를 공장 인근 논에서 난 김제 쌀로만 만들어 맛과 영양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연구원 회원들께서 구매할 경우 정상가보다 10% 할인판매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 이 소식란은 연구원 회원들 동정에 관한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12일(월) : 주간회의(14시)
- 10월 17일(토) : GHS 남산답사

■ 역사속의 오늘

○ 신당역의 기적 - 2003. 10. 14

: 2003년 10월 14일은 한국사람 모두에게 살가운 추억이 만들어진 날이다. 어느 누군가가 휘두른 문지마 칼날에 목이 베일지도 모르고 혹은 투신자살하는 사람이 내 머리위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늘까지도 살펴야 하는 참으로 팍팍하고 겁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에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10시 20분 경이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들어서던 열차가 급정거하였다. 열차와 선로 사이에 한 남성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사람들은 눈앞의 참상에 놀라,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 남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119가 도착하기 전 그 사람은 절명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이 "밀어 봅시다." 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전동차에 달라붙어 열차를 밀기 시작했다.

아래 사진이 흔히 '신당역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던 당시의 모습이다.



거대한 절망 앞에서 올망졸망 매달린 사람들의 모습은 기적을 일으킨 가늠할 수 없는 송고함이었다.

그날 신당역에 있던 사람들은 기적을 이루고 나누었다. 동시에 그들은 역사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가장 단시간에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전동차 밑에 끼인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널려 있다.

인간의 가치가 지하로 침잠당하고 자본의 가치가 마천루보다 높이 추앙받는 오늘, 과연 기적은 그날 신당역에서만 존재했던 것일까? 맞잡은 손의 힘으로 우주만큼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역

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날 밤뿐이었을까? 막막함에 자문해본다.

○ 소양강 댐 완공 - 1973. 10. 15

: 소양강 댐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찍부터 나왔다. 이미 1957년경부터 한국전력은 소양강에 수력 발전용 댐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는 분단의 비극에서부터 유래하였다. 해방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자, 북한은 미군정이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를 끊어 버렸던 것이다. 아득바득 건설한 화력발전소들도 전쟁에 잣더미가 된 게 대부분이었던지라 한국의 전력 사정은 지극히 오랫동안 깜깜함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강 상류 소양강에 눈길이 갔던 것이다. 결국 1965년 한일기본조약 조인에 따라 받은 대일 청구금 중 일부를 소양강댐 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1967년 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준공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흥분했다.

“여기, 또 하나 우리 인간이 대자연에 엄청난 도전을 하여 인간의 의지로서 자연을 극복하고 개가를 올린 산 증거를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댐은 사력(砂礫) 공법의 댐으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사가 우리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술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양강댐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만이 아니다. 정부의 독려하에 매일 1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작업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내내 이어졌다. 산을 깎고 언덕을 발라내는 난공사 속에 흙더미에 깔리고 발을 헛디딤 바람으로 떨어지고 폭발에 날아간 사람이 서른 일곱 명에 달했다. 물론 이것도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다. 그 건설의 주역들 스스로 “수백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오지 중의 오지였던 소양강 댐 공사 현장에서 죽어간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장에서 죽어갔으나 위령비에 이름 석 자조차 올리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생면부지의 고장에 와 목숨을 걸고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야말로 소양강댐이라는 대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이들은 바로 소양강 주변에서 살던 주민들이다. 평생의 터전이 수몰지구로 지정되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1만 8천 명의 주민들의 한숨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시책 앞에서 자신의 생활 터전을 ‘당연히’ 그리고 별 보상도 없이 내주고 생판 낯선 땅에서 맴돌다 스러져간 민초들의 사연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흡사 재방송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음도 함께...